

韓日經濟關係의 未來像

—懸案問題解決과 共同利益追求方向 및 制度的摸索을 中心으로—

〈3〉

沈 成 根

〈特許廳 審査4局 雜貨課〉

—承 前—

(2) 2천년대의 에너지로 불려지는 原子力은 80年 現在 世界施設用量은 160GW(1GW : 10億W)인데 85년에 325GW로 豫測될 만큼 代替에너지로 有望하지만 核擴散防止條約과 安全性에 대한 공포로 韓日에서는 關心表明을 꺼리는 分野인데 우라늄濃縮技術, 廢棄物處理技術의 習得과 改善, 核分裂方式보다 60倍以上의 效率이 높은 高速增殖爐(Breeder Reactor)分野가 프랑스등에서 相當한 技術을 開發한 狀態이고, 核融合爐(Fusion)가 開發中에 있으며 EC는 유럽 原子力共同體協定으로 이소푸라등 4개 공동연구소를 構成, 高中性子原子爐 등 廣範圍한 研究를 하고 있다. 일본도 獨自的 開發을 推進하고 韓國도 沃川系 含우라늄粘板岩과 有名山區域 硅岩層에서 注目되는 探鑛과 浸出試驗을 하고 있는데 濃縮 우라늄生産者 그룹인 UI가 아직 가격카르텔을 形成하고 있지 않으나 OECD등에서 1985년 우라늄波動을 조심스럽게 豫測하여 우라늄需要供給과 에너지化技術에 不安要因이 있으므로 共同利益을 目標로 協力이 要請된다.

(3) 海洋에너지는 干滿의 差를 利用한 潮力發電과 海流나 波力을 利用하는 것, 바다의 表面과 深部の 溫度差를 利用하는 OTEC가 있는데 潮力發電은 소련이 1962년 Kislaya Guba에 8천KW 試驗用建設以來 프랑스가 1967년 Rance에 24만KW 潮力發電을 建設實用化 했는데 英, 美, 加등에서 수백만 KW容量의 建設妥當性調査가 進行中이다. 韓國도 潮力에 相當히 有利한 立地條件으로 經濟性을 檢討 潮力發電所建立을 建議한 바도 있다.

OTEC는 美國하와이洲政府主導로 하와이島 코나沿岸에 沸騰點이 낮은 암모니아를 蒸氣化하여 터빈을 돌리는 方式으로 79년 8월 50KW 試驗用發電에 成功, 80년부터는 4만KW급의 實用化를 本格的으로 推進中이다. 波力을 利用하는 方法은 65년 小型 波力發電機가

나왔고 1975년부터 1천KW의 大型開發에 着手; 英國에서 5만KW~4천만KW의 超大型波力發電施設을 계획 85년 完工할 예정이고, 美로키드社는 2천KW出力 直徑 75m의 돌출波力發電장치의 特許를 받아놓고 있다.

波力의 移動은 힘은 강하나 느리므로 空氣를 개입 吸出, 吸入시켜 公기의 速度를 빠르게 하여 터빈을 돌리는 공기 터빈型이 日本에서 氣象觀測用, 海上保安廳燈臺用 電源으로 實用化했고, 浮體에 파이프를 달고 浮體가 파도에 밀려 상하로 움직일 때 海水가 파이프로 上昇하는 힘을 利用, 터빈을 돌리는 장치를 開發했고, 英國에서는 2重作動펌프式이 쓰여진다. 海洋에너지는 海洋의 特殊性으로 材料의 부식, 頁類의 번식에 곤란이 있지만 兩國 모두 수천 km의 海岸과 바다를 끼고 있어 海洋에너지資源이 豊富하며 公害가 없고 波力의 경우 防波堤를 겸할 수 있고 世界기술이 實用化段階에 와 있어 2천년대 수십억 KWH의 設置가 展望되는 데 값도 太陽에너지보다 싸게 開發할 수 있고 地球上資源이 無限하여 에너지 代替輸出産業으로 有望하다.

(4) 太陽에너지는, 太陽熱을 利用하는 것에는 EC에서 7천m²에 이르는 25枚의 거울을 利用 50m 높이 塔頂上의 보일러를 가열 510°C 64氣壓의 증기로 터어빈을 돌리는 1천KW의 태양열發電소가 이탈리아 시실리島에 건설중이고 국제 에너지 기구(IEA)에서는 放物面狀으로 거울을 늘여세워 焦點을 통과하는 石油증기로 터빈을 돌려 農業動力을 얻는 太陽農場方式과 수많은 平面鏡을 설치 태양을 추적하며 反射熱로 塔上의 증기 發生器속의 液體나트륨을 가열, 産業動力化하는 方式이 500KW씩 스페인 남부알메리에에 각각 1基씩 설치되어 10개국서 實驗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太陽光으로부터 電氣를 얻는 태양전지方式도 있다. 赤道附近 國家에서 태양에너지 5%를 實用化하면 世界原油埋藏量을 웃도는 8천억배럴의 石油를 節約할 수 있다고

推計하고 있다. 太陽에너지를 모으는 技術, 蓄積 利用하는 技術, 能動的으로 우주공간에서 太陽熱로 發電하여 地球로 送電하는 方式등 다양하게 研究되고 있으며 住宅 냉난방, 農場등에 實用化하면 賦存資源이 많은 열대후진국에 輸出産業으로 有利한 것이다.

(5) 그 밖에 에너지技術로 日本科學技術廳의 日本風力調査에서 79年 全國發電量 590億KWH를 넘는 700억 KWH의 에너지를 算出하고 年平均風速이 4.4m이상인 強風地帶海岸線 600km에 100m 間隔으로 風車를 세우면 年間 20억KWH의 發電이 可能한 것으로 報告되었는데 風力외에 小規模水力, 電氣自動車등 석유에너지 代替 내지 節約할 수 있는 技術의 開發이 兩國經濟協力の 軸점이 되어야 한다.

(6) 大陸棚石油開發에 兩國協력이 이뤄졌는데 美國 에너지研究所에 의하면 海底에는 12,350億배럴의 石油과 4,120兆 입방피트의 gas가 埋藏되어 있으며 海水에는 無限의 우라늄이 극소량 溶融되어있고 重水素가 무진장하며 世界는 2천년 初般에 150억KWH의 電力을 필요로 하게 되어 地下의 우라늄은 枯渴된다고 한다. 그때까지는 海水로부터 經濟的인 採取方式이 開發되어야 한다. 또한 4,000m상의 深海底海床에는 太平洋에만 170억톤으로 推定되는 망간塊(mangan nodule)가 깔려있는데 구리 니켈 코발트가 풍부히 함유되어있으며 陸地에 埋藏된 資源의 수백배로 推算되고있다. 이 深海底개발은 1968년 UN下 深海底底平和의利用委員會가 常設되어 深海底底資源은 人類全體의 資産으로 생각될 것, 國家의 領有禁止, 모든 國家의 平和의利用 등「深海底底原則宣言」이 있었으나 利害가 엇갈려 別進前이 없는 狀態이고 妥結이 된다면 技術保有이 國直接參與하는 有利한 位置에 설것이다. 그러므로 現兩國의 石油探查協力は 大陸棚의 모든 資源으로 擴大하고 深海底領域까지 開發할 수 있는 技術을 保有하도록 協力を 다져 나가야겠다.

8. 基本關係條約의 轉換 摸索

日帝 35年間 韓國人口 2.6%의 日本人이 全體産業資本의 93%를 占有하며 韓國農民의 43%인 120만戶가 春窮民으로 草根木皮로 연명하고 너무 배고파 白土까지 먹어야했던 비참하던 過去狀態를 記憶하고 恤한 公定價格으로 1944년 쌀 生産量의 63.8%인 1,196만석을 40여종의 물품과 같이 贖아갔던 強制供出制度和 2차대전중 끌려간 70~80만의 徵用, 徵兵을 忘却할 수 없지만 地理的宿命인 韓日間, 百年大計를 위하여 65년의 基本관계에 관한 條約으로 國交를 正常化하고 相互協力を 다짐한 뒤 15년이 경과한 후 년간 1백억달러규모의 경제교류, 50만에 달하는 人的交流, 일본주재 1백여

公館中 美, 蘇 다음 3번째규모인 수천명 내지에 7층의 駐日韓國大使館, 7個총영사관, 3개영사관등 經濟적으로 가장 密接한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좀처럼 解決되지 않는 懸案問題를 解決하고 兩國民間感情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歷史的敵意를 참된 友意로 結合시키기 위해 全般에 걸쳐 綜合的인 韓日協力條約을 提示한다.

그간 韓日間에는 基本관계 조약과 24개의 協定을 체결했는데 佛獨關係를 仙山之石으로 삼아 다음 事項을 包含시켜야겠다.

첫째 유럽支拂同盟이나 아시아清算同盟의 例에 따라 貿易去來清算條約을 締結하여 去來의 裁決費를 節減하고 兩國間貿易은 經濟水準을 고려하면서 無關稅내지 緩化로 유도하되 지금까지와 같은 不均衡의 是正에 協助를 表示하고 購買使節團을 파견해오기도 했지만 一時的인 誠意表示에 지나지 않으므로 만약 是正되지 않는 貿易赤字의 累積은 最終에 日本에게는 顧客을 잃는 정도이나 韓國側에는 경제파탄이라는 致命的인 結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自動調整機能을 갖기 위해 輸出액을 技術 및 設備改善資金으로 一定率의 有・無償으로 相對國에 提供토록 하여 同一業種別 水平分業形態로 結合시키며

둘째 無關稅稅金 兩國間交易品에 일정율의 協力基金을 賦課하여 上述한 에너지 分野, 海洋 및 大陸棚分野의 戰略的인 研究 및 技術開發을 共同으로 推進하며

셋째 企業間 技術人力의 교환 훈련을 제공하고 研究機關들의 交流, 相對國 국민에 대한 장학금수여로 유학유치 교수교환, 放學동안 다량의 대학생 상호방문, 문화교류의 상당부분을 협력기금에서 支援하고 양국민의 상호이해와 意識構造的인 共感帶를 형성해감으로써 將來兩國關係의 기틀을 다져가야겠다

넷째 相對國에 裁判權이 있는 犯法者에 대하여 犯人引渡義務를 骨子로 한 犯人共助協定을 체결하여 一方이 相對國의 犯罪者의 비호처가 됨으로써 상대국 국민 의 國論分裂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이것이 정치외교문제로 發展, 각종 협력에 금이 가게하고 양국민의 비뚤어진 갈등에 편승, 대립을 深化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

兩國關係가 效率的으로 그리고 健全하게 發展케 하는 새로운 韓日關係가 이뤄지면 양국의 國歌의 歌詞처럼 영원히 번영할 것이며 대한해협에 터널이 풀려야 할만큼 經濟關係는 均衡軸에 相互補完的으로 긴밀해지고 마음속깊이 통하는 길이 생겨서 양국의 地理적위치가 의미하듯 世界 歷史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感情과 競爭意識으로부터 韓國은 日本이 發展하면 발전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기쁘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共感帶를 갖게 될 것이다. <完>